

삼성전자, 세종시 입주 “긍정적”

이윤우 부회장, 협조적 입장 표명 ... 구체적 사안은 결정 못해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종시 입주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윤우 부회장은 1월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코엑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세종시 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세종시에 들어갈 대표기업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삼성전자 측은 정부안이 공식 발표된 이후 검토해 보겠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다른 재계 총수들도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만 내놨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은 세종시 이전 여부를 검토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사안은 정말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07>